



세계의 음식·문화·전통 순천만정원서 즐기세요

10~26일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 ...30개국 주한대사 참석 '녹색 선언' 그룹 '국가스텐' 개막식 축하공연·세계문화 플라마켓 등 행사·체험 다채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순천만 국가정원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정원으로 거듭난다. 순천시는 세계 30개국 주한대사가 정원 속 세계인의 축제인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 개막식 참석을 위해 10일 순천만 국가정원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는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참가한 13개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문화 교류의 계기를 마련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정원으로도 인지도 확산을 위해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펼쳐지는 축제다.

축제 기간 동안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 전통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 축제 첫날인 10일은 공군 군악대와 비보이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의 개막을 알린다. 이어 세계 30개국의 주한대사가 참여하는 자연과 지구를 지키는 아름다운 약속인 '녹색 선언 세레모니'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된다. 개막식 이후에는 음악대장 하현우로 널리 알려진 그룹 '국가스텐'의 축하 무

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페스타 기간 동안 진행되는 '세계문화 플라마켓'은 세계 각국의 문화를 만나고 즐기는 지구촌 장터로 각 나라의 음식, 특산물, 공예품, 체험 등 다양한 세계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원이 관람객에게 선사하는 자연 그 자체로의 힐링을 유지하면서,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정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순천만정원서 11일부터 철쭉분재 전시회

순천 철쭉의 우수성을 알리고 조경·화훼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철쭉분재 전시회가 11일부터 순천만국가정원 서문 국제습지센터 1층에서 열린다. <사진> 이번 철쭉분재 전시회 출품작은 순천에서 재배되고 있는 철쭉 100여점으로 한 그루에서 여러 가지 꽃이 피는 진귀하고 아름다운 철쭉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회에는 야생화 60점도 함께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시장에서는 분재 관람과 함께 분재용 철쭉 관리 요령 등 분재 기본 교육도 이루어

지며 더 나아가에서 생산한 분재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전국 주요 철쭉 생산지이기도 한 순천시는 정원지원센터와 연계해 철쭉 재배와 생산, 유통체계, 철쭉 유전자원 연구 등 품종 개발을 통한 철쭉 명품화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원의 도시로서 순천 철쭉의 우수성 홍보와 철쭉분재 전시를 통해 철쭉산업의 다양화로 정원수·화훼 생산 농가의 소득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치매 안심하고 치료 받으세요" 순천시보건소 홍보

"치매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순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를 적극 발굴하고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병원·의원·약국), 다중이용시설(복지관) 등 500여개소를 직접 방문해 포스터 배부 등 홍보에 나섰다. 순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매월 1천여명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이내로 연중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되는 치매치료관리비는 중위소득 120%이하 대상자에게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다. 지원 신청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임이 증명될 시 가족 통장 가능), 치매어르신 및 신청자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자(피보험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을 가지고 순천시 보건소 2층 보건사업과로 방문하면 된다. 순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내일의 기억과 함께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치매예방과 조기 발견 홍보에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순천시 '도시재생 주민 새싹' 33명 배출

새싹학교 6회 진행

순천시는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저전동 일반근린형)을 위해 지난 달 3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도시재생 새싹학교'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도시재생 새싹학교는 도시재생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초급 이론교육과 사례 현장탐방을 통해 주민역량강화,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중점을 '도시재생 주민 새싹' 33명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교육 뿐 만 아

니라,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의 방향성 이해와 지역 탐방을 통한 마을 자원조사, 탐방 발굴 주민공동체사업에 대한 토론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도시재생 실행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모르고 지냈던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마을에 중요성을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마을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열정을 보였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주민들에 의해 발굴된 공동체사업 아이템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가구당 16만원 지원

순천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순천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LNG연료를 쓰는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 가구당 16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소재한 주택에 설치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려는 주택 소유주이며, 소유주 뿐만 아니라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시 생태환경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신청 전 유의할 점은 친환경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여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나 도시가스 배관 미설치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설치 대리점에 설치 가능여부를 사전에 문의·확인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노후 일반보일러를 저녹스(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감소하고 에너지 효율은 더 높아져 대기질 개선과 연료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축 광주일보 창사 6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더 큰 군산을 위한 행복한 동행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시민의 마음과 같이
알뜰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군산시의회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